

# 북한이탈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련성

##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North Korean Immigrant Women

이인숙\*, 양윤미\*\*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Insook Lee(is2009@nate.com)\*, Yun-mi Yang(art06160@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관련성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북한이탈여성 총 2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40점으로 조사되었다. 외모관심도는 5점 만점에 3.20점이며, 외모관리 행동은 5점 만점에 2.67점으로, 대상자들은 메이크업과 의복관리 행동을 많이 하지만 운동, 섭식 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는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모관리행동에서는 외모관리 하위 영역별 차이는 있으나, 연령, 성형관심도, 재복지 직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과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관심도는 외모관리행동,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외모관리행동은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넷째,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는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을 44.7% 설명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북한이탈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외모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 중심어 : | 북한이탈여성 | 자아존중감 | 외모관리행동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baseline data by exploring the self-esteem and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North Korean immigrant wom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4 to February 2015 from 201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 1) The mean score of self-esteem was 2.40 in 4 points, and the mean of the appearance concern was 3.20 in 5 points. And the mean of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as 2.67 in 5 points. Subjects had a lot of make-up and clothes behaviors. However exercise, food intake behaviors of subjects were lower than average.
-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lf-esteem, the appearance concern and general characteristics(e.g age, intent weight loss,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In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and job in North Korea.
- 3)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and the appearance concern,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ge, intent weight control as well as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In the appearance concern, it showed a correlation with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ge, intent weight control as well as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In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age, intent weight control and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 4) 44.7% of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as explained: self-esteem, the appearance concern.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utilization of developing programs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 keyword : | North Korean Immigrant Women | Self-esteem |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

## I. 서론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로서 정신건강 및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이나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신적, 사회적 생활적응의 한 지표가 된다[1].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하나의 특별한 개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Rosenberg, 1965)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양산되는 정서적인 반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2].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성, 경제적 적응 및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및 외모 평가[3-5]와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외모에 대한 느낌과 수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외모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은 미의 다양성의 추구로 단순히 얼굴의 메이크업 뿐 만 아니라 헤어, 의상까지도 외모관리로 포함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미의 기준에서 볼 때, 자신의 신체 단점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외모관리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 보다 나은 외모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논하기 어려울 만큼 외모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7].

외모관리 행동은 사회생활과 상호관련성 있는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외모관리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조정하고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정서적 소통과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형성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외모관리행동이 얼굴 매력 또는 전반적인 신체 매력을 결정하는 예측 요인 중 하나이며,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 요인이라 하였다[5]. 또한, 외모관리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상황 내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관대한 평가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감을 받는 반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타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이는 곧 자신감을 상실하는 원인이기도 하다[8]. 신체는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자산으로 인식되며 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는 자신감과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서 개인적인 만족 혹은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9].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000명이 넘게 입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25,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10],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이탈 여성 입국자 수가 전체 이탈 주민의 70%로 여성이탈자 수의 증가는 주목할만한 수준이다. 북한이탈 여성들은 탈북 과정 및 탈북 후 제 3국에서의 체류 과정, 폭력과 신변 위협에 따른 정신적 문제 및 영양부족, 집단생활의 감염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와 자존감 상실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입국 후 한국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문화적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지각된 적대감과 차별감, 외로움, 문화적 스트레스 등 자아존중감 상실에 의한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11]. 북한이탈 여성은 새로운 사회,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으로서, 외로움과 적대감, 차별감을 극복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한 남한생활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외상경험[11], 자존감 및 경제적응과 생활 만족도[12], 정신건강[13] 등 주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으나,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이탈 여성들이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건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PO1-201410-SB-01-02)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새조위 교육원에 등록된 북한이탈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후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을 사용하여 양측검정,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는 최소 134명이 필요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총 201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가 평가식 측정도구(Self-administered method)로 조사 목적에 맞게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여 북한이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측정도구의 내용과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한 후, 경력 20년 이상의 하나원 간호사, 간호대학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구성한 본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 외모관심도(Appearance interest)

외모관심도는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신체 장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장항미(2010)[8]가 사용한 도구를 대상자 수준에 맞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며, 총 10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장항미(201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9$ 였고, 본 연구에서는 .925였다.

### 3.2 외모관리행동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외모관리행동의 주관적 평가 내용은 이인숙과 양윤미(2015)[14]가 사용한 도구를 대상자 수준에 맞게 재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31개의 문항으로 운동, 섭식 행위, 헤어관리, 메이크업 등의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 외모관리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양윤미 연구(2015)[14]에서는 Cronbach’s  $\alpha = .869$ 였고, 본 연구에서 .942, 각 하위 영역별로는 운동 0.75, 섭식 0.85, 헤어 0.87, 메이크업 0.91, 의복이 0.89였다.

### 3.3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제(1974)[15]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총 10개의 문항, 4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을 부여하여 총점 40점 만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0$ 이었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외모관심도,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e’ 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6.74세로 40대가 38.3%, 50대가 27.9%,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2.4%이며, 20대는 9%로 조사되었다. 남한 입국시 대상자의 17.4%만이 배

우자와 동반 입국하였고, 나머지 82.6%는 미혼이거나 기혼이지만 혼자 입국하였다.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전체의 67.7%가 남한의 중·고등 과정인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재북시 직업에서는 ‘노동자’가 전체의 39.3%, ‘무직’이 20.4%, ‘전문직’이 17.4%였다. 비만도에서는 60.7%가 ‘정상’, 20.9% ‘과체중’, 16.4%가 ‘마름’이었으며, ‘비만’으로 조사된 대상자가 2%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응답자는 절반이상인 56.7%로 조사되었고,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대상자들의 체중조절방법으로는 운동과 식이요법에 대해 70%이상 응답하였다. 대상자들의 95.5%는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86.6%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형관심도에서는 47.8%가 ‘보통’ 혹은 ‘관심있음’으로 응답하였고, 관심있는 대상자들의 34.4%는 쌍꺼풀 성형을 원하였으며, ‘지방흡입’, ‘치아교정’도 각각 15.7%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1)

Variables	Categories	n	%
연령	20-29세	18	9
	30-39세	25	12.4
	40-49세	77	38.3
	50-59세	56	27.9
	60세 이상	25	12.4
	Mean ± SD		46.74±11.31
배우자 동반여부	예	35	17.4
	아니오	86	42.8
	미혼	80	39.8
교육과정	인민학교 졸업 이하	15	7.5
	고등중학교 졸업	136	67.7
	전문학교 졸업	33	16.4
	전문대학 이상졸업	17	8.5
재북시 직업	무직(혹은 부양)	41	20.4
	농업	21	10.4
	노동자	79	39.3
	전문직	35	17.4
	학생	14	7.0
	군인 및 기타 서비스	11	5.5
비만도	마름	33	16.4
	정상	122	60.7
	과체중	42	20.9
	비만	4	2.0
체중조절 의도	그렇다	114	56.7
	아니다	87	43.3
체중조절방법 (114명)	식이요법	38	33.2
	운동	48	42.1
	의약품이나 보조식품	11	9.6
	기타(두 가지 이상)	23	20.1
	없음	9	4.5
흡연	안한다	192	95.5
	한다	27	13.4
음주	안한다	174	86.6
	있음	32	15.9
성형관심도	보통	64	31.9
	없음	105	52.2
	쌍꺼풀	11	34.4
원하는 부위 (32명)	코	3	9.3
	사각턱	2	6.3
	지방흡입	5	15.7
	가슴	3	9.3
	치아교정	5	15.7
	기타	3	9.3

2.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 행동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23.96±4.64점으로 4점 척도 환산시 2.40±0.77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외모관심도는 평균 32.01±7.50점이며, 5점 척도 환산시 3.20±0.00점이었었다.

외모관리 행동은 전체 평균 82.60±18.08점으로, 5점 척도로 환산시 2.67±0.97점이며, 하위영역인 의복 2.93±1.01점, 메이크업 2.80±0.99점, 헤어 2.61±0.97점, 운동 2.59±0.93점, 섭식 2.37±0.92점의 순으로, 대상자들은 의복관리 행동과 메이크업은 많이 하지만 운동, 섭식 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표 2.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

	Range	Mean±SD	4점 환산
자아존중감	10.00-40.00	23.96±4.64	2.40±0.77
	min - max	Mean±SD	5점 환산
외모관심도	10.00-50.00	32.01±7.50	3.20±0.00
외모관리 행동	31.00-143.00	82.60±18.08	2.67±0.97
	운동	10.35±2.81	2.59±0.93
	섭식	18.96±5.17	2.37±0.92
	헤어	13.07±3.96	2.61±0.97
	메이크업	19.62±5.63	2.80±0.99
	의복	20.57±5.54	2.93±1.0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는 [표 3][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20대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F=4.068, p=.003),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집단에서(t=1.979, p=.049),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F=5.560, p=.004).

대상자의 외모관심도는 연령, 체중조절 의도 및 성형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20대의 외모관심도가 유의하게 높았고(F=2.937, p=.022),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집단에서 (t=2.269, p=.024),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F=11.745, p<.001) 외모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심도 차이

변수	범주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M±SD	t/F (p)	M±SD	t/F (p)
연령	20-29세	25.50±4.67 <sup>a</sup>	4.068 (0.003)	35.33±6.21 <sup>a</sup>	2.937 (0.022)
	30-39세	23.56±5.16 <sup>a</sup>		32.60±7.84 <sup>b</sup>	
	40-49세	24.74±4.77 <sup>a</sup>		32.90±7.41 <sup>b</sup>	
	50-59세	23.93±3.75 <sup>a</sup>		31.07±6.87 <sup>b</sup>	
	60세 이상	20.88±4.42 <sup>b</sup>		28.44±8.44 <sup>b</sup>	
배우자 동반 유무	예	24.34±5.03	0.181 (0.835)	32.46±7.42	1.276 (0.282)
	아니오	23.97±3.55		32.79±5.07	
	미혼	23.78±5.49		30.99±9.45	
교육 과정	인민학교 졸업이하	23.40±6.40	0.183 (0.908)	33.13±7.74	0.415 (0.742)
	고등중학교 졸업	23.89±4.25		32.06±7.40	
	전문학교 졸업	24.39±5.04		32.21±7.80	
	전문대학 이상 졸업	24.12±5.45		30.29±7.90	
재복지 직업	무직(혹은 부양)	23.95±4.22	0.819 (0.537)	33.09±6.83	1.405 (0.224)
	농업	23.24±3.99		31.76±4.86	
	노동자	23.27±5.01		31.43±8.29	
	전문직	24.43±4.88		31.71±7.34	
	학생	25.36±4.83		35.79±6.62	
	군인 및 기타 서비스	25.09±3.51		28.82±8.67	
비만도	마름	24.73±4.96	2.380 (0.071)	31.45±7.95	0.727 (0.537)
	정상	23.31±4.68		31.63±7.66	
	과체중	25.31±4.18		33.50±6.94	
	비만	23.00±1.63		32.75±2.87	
체중조절 의도	그렇다	24.52±4.70	1.979 (0.049)	33.05±6.95	2.269 (0.024)
	아니다	23.22±4.49		30.66±7.99	
흡연	유	23.44±2.96	-0.337 (0.737)	29.33±6.00	-1.098 (0.273)
	무	23.98±4.71		32.14±7.55	
음주	유	24.93±3.62	1.168 (0.244)	33.30±5.68	0.954 (0.341)
	무	23.80±4.78		31.82±7.74	
성형 관심도	있음	26.38±4.05 <sup>a</sup>	5.560 (0.004)	36.72±7.03 <sup>a</sup>	11.745 ((0.001))
	보통	23.75±4.41 <sup>b</sup>		32.97±6.80 <sup>b</sup>	
	없음	23.34±4.75 <sup>b</sup>		30.00±7.34 <sup>b</sup>	

\* p< 0.05 , Scheffe a)b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에서는 운동영역이 성형관심도(F=3.961, p=.02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형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들의 운동점수가 성형관심도가 보통이거나 관심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섭식 영역에서는 배우자와 동반 입국한 대상자들의 섭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3.315, p=.038). 헤어관리 행동은 연령, 재복지 직업 및 성형 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0대(F=2.524, p=.042), 재복지 학생 집단(F=2.336, p=.043)에서 헤어관리 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성형에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그

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헤어관리 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F=9.496, p<.001). 메이크업, 의복관리 행동에서도 연령, 성형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에 따라 20대 집단은 메이크업 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F=5.276, p<.001), 성형관심도가 있는 집단에서 메이크업 행동이 유의하게 많았다(F=12.875, p<.001). 의복관리 행동은 20대 집단에서 6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의복관리 행동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F=3.008, p=.019), 성형관심도가 있는 집단에서 보통이거나 관심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의복 관리 행동 점수가 높았다(F=11.306, p<.001)[표 4].

4. 일반적 특성과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r=.359, p<.001), 외모관리행동(r=.382, p<.001), 연령(r=-.196, p=.005), 체중조절의도(r=-.139, p=.049), 성형관심도(r=.205, p=.003)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모관심도는 외모관리행동(r=.649, p<.001), 연령(r=-.221, p=.002), 체중조절의도(r=-.159, p=.024), 성형관심도(r=.352, p<.001)와 상관관계가 유의했다. 외모관리행동은 연령(r=-.220, p=.002), 체중조절의도(r=-.1445, p=.041) 및 성형관심도(r=-.290, p<.001)와 상관관계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체중조절의도(r=.142, p=.045), 성형관심도(r=.248, p<.001)와 유의하였고, 체중조절 의도는 성형관심도(r=0.141, p=.046)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외모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을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잔차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369으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고, 독립변수의 상관계수는 0.008~0.649로 0.80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0.805~0.993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변수	범주	외모관리행동									
		운동		섭식		헤어		메이크업		의복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연령	20-29세	11.39±2.64	1.028 (0.394)	19.11±5.26	0.592 (0.669)	15.78±2.84 <sup>a</sup>	2.524 (0.042)	23.89±5.29 <sup>a</sup>	5.276 ((0.001)	23.56±3.71 <sup>a</sup>	3.008 (0.019)
	30-39세	10.68±3.28		19.12±5.40		13.16±4.56 <sup>ab</sup>		19.28±5.53 <sup>b</sup>		20.04±5.68 <sup>ab</sup>	
	40-49세	9.99±2.63		18.79±4.98		12.86±4.24 <sup>ab</sup>		20.12±5.12 <sup>ab</sup>		20.96±5.76 <sup>ab</sup>	
	50-59세	10.38±2.60		19.55±4.97		12.77±3.30 <sup>ab</sup>		18.89±5.54 <sup>a</sup>		20.48±4.71 <sup>ab</sup>	
	60세이상	10.36±3.35		17.68±6.01		12.36±3.97 <sup>b</sup>		19.56±5.67 <sup>b</sup>		17.92±6.57 <sup>b</sup>	
배우자 동반유무	예	10.86±2.94	1.169 (0.313)	20.63±4.64 <sup>a</sup>	3.315 (0.038)	13.49±4.13	0.590 (0.555)	19.40±5.95	1.382 (0.253)	20.71±6.33	1.629 (0.199)
	아니오	10.45±2.25		19.11±4.41 <sup>ab</sup>		13.23±3.53		20.29±4.59		21.28±4.58	
	미혼	10.03±2.81		18.00±5.94 <sup>a</sup>		12.71±4.31		18.84±6.51		19.74±6.06	
교육과정	인민학교 졸업이하	10.40±3.78	2.067 (0.106)	20.00±5.94	1.035 (0.378)	14.40±2.85	2.283 (0.080)	22.13±6.69	1.999 (0.115)	21.93±6.22	1.320 (0.269)
	고등학교 졸업	10.15±2.66		18.80±5.02		13.18±3.88		19.68±5.41		20.74±5.40	
	전문학교 졸업	11.42±2.74		19.79±5.40		13.12±4.53		19.00±6.13		20.39±5.29	
	전문대학 이상 졸업	9.82±2.86		17.41±5.18		10.94±3.78		17.41±5.33		18.29±5.54	
재복지 직업	무직 (혹은부양)	10.07±2.18	2.195 (0.056)	18.39±3.90	1.666 (0.145)	13.88±3.15 <sup>ab</sup>	2.336 (0.043)	20.66±5.41	2.164 (0.060)	21.56±4.66	1.499 (0.192)
	농업	10.62±2.31		21.00±5.10		13.00±2.79 <sup>ab</sup>		20.38±4.06		20.48±4.62	
	노동자	10.05±3.04		18.35±5.17		12.11±4.17 <sup>b</sup>		18.75±5.79		19.72±5.79	
	전문직	11.06±2.69		19.91±5.76		13.54±4.52 <sup>ab</sup>		18.91±5.73		20.89±6.51	
	학생	11.86±2.96		19.86±5.57		15.29±3.02 <sup>a</sup>		22.93±6.12		23.14±4.47	
	군인 및 기타 서비스	8.91±3.33		16.91±6.14		12.73±4.84 <sup>ab</sup>		17.45±6.12		18.82±5.47	
비만도	마름	10.06±2.98	0.702 (0.552)	17.85±5.94	0.579 (0.629)	13.45±4.18	0.493 (0.688)	20.79±6.90	1.031 (0.380)	21.21±6.33	1.554 (0.202)
	정상	10.31±2.88		19.16±5.15		12.81±3.90		19.47±5.33		19.91±5.46	
	과체중	10.81±2.40		19.12±4.60		13.40±4.10		18.67±5.76		21.83±5.17	
	비만	9.25±3.40		19.25±5.62		14.25±2.22		21.50±2.08		22.00±2.45	
체중조절 의도	그렇다	10.62±2.71	1.565 (0.119)	19.43±4.80	1.558 (0.121)	13.52±4.05	1.848 (0.066)	20.03±5.48	1.345 (0.180)	21.15±5.46	1.713 (0.088)
	아니다	10.00±2.91		18.29±5.58		12.48±3.77		18.94±5.64		19.80±5.59	
흡연	유	11.11±3.66	0.829 (0.408)	21.22±5.38	1.361 (0.175)	12.67±3.35	-0.312 (0.755)	19.56±5.41	-0.001 (0.999)	20.00±5.52	-0.313 (0.754)
	무	10.32±2.77		18.83±5.15		13.09±3.99		19.56±5.70		20.59±5.56	
음주	유	11.15±2.32	1.589 (0.114)	20.59±4.18	1.801 (0.073)	14.67±2.60	3.315 (0.003)	21.96±4.53	2.397 (0.017)	22.22±4.90	1.676 (0.095)
	무	10.23±2.86		18.68±5.27		12.82±4.08		19.18±5.75		20.31±5.60	
성형 관심도	있음	11.56±2.37 <sup>a</sup>	3.691 (0.027)	20.44±5.17	2.341 (0.099)	15.75±3.68 <sup>a</sup>	9.496 ((0.001)	23.72±4.81 <sup>a</sup>	12.875 ((0.001)	23.94±4.23 <sup>a</sup>	11.306 ((0.001)
	보통	10.22±2.70 <sup>b</sup>		18.05±4.86		12.48±4.02 <sup>b</sup>		19.66±5.36 <sup>b</sup>		21.31±5.15 <sup>b</sup>	
	없음	10.07±2.92 <sup>b</sup>		19.02±5.28		12.61±3.69 <sup>b</sup>		18.23±5.51 <sup>b</sup>		19.09±5.62 <sup>b</sup>	

\* p< 0.05, Scheffe a)b

inflation factor, VIF)도 기준값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독립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외모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6]과 같다. 외모 관리행동에 대해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79.898 p<.001), 외모관심도(β=0.588, p<.001), 자아존중감(β=0.171, p=.003)이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을 44.7% 설명하였다.

표 5.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와의 상관관계

	외모관심도	외모 관리 행동	연령	체중 조절 의도	성형 관심도
자아 존중감	.359** ((.001)	.382** ((.001)	-.196** (.005)	-.139* (.049)	.205** (.003)
외모 관심도	1	.649** ((.001)	-.221** (.002)	-.159* (.024)	.352** ((.001)
외모 관리 행동		1	-.220** (.002)	-.144* (.041)	-.290** ((.001)
연령			1	.142* (.045)	.248** ((.001)
체중 조절 의도				1	.141* (.046)

\* p< 0.05, \*\* p< 0.001

표 6.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측 변인	B	S.E	$\beta$	t	p	R <sup>2</sup>	Adj. R <sup>2</sup>	F(p)
외모 관심도	1.414	0.136	0.588	10.375	<.001	0.447	0.441	79.898 (.001)
자아 존중감	0.663	0.220	0.171	3.014	.003			

\* p<0.05  
종속변수 : 외모관리행동  
VIF 1.007-1.148

#### IV. 논 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북한이탈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이주민으로서, 남한사회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외모 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대상자의 22.9%가 과체중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비만도는 카우프 지수 비만도 계산법에 의해 체질량 지수 25%이상이면 과체중으로 판단하며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평가를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16]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여성의 비만 유병율이 25.1%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는 자가 기입으로 신장과 체중을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체중 이상의 대상자들에게 건강을 위한 교육이 정상체중 및 건강한 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상자의 절반가량인 47.8%에서 성형에 대한 관심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는데,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북한이탈 여성들도 외모중심 사회를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성형 의도는 높아진다[17]. 북한이탈 여성들이 이주민으로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과 차별 극복을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외모관리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하는 적응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북한이탈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연령, 체중조절 의도 및 성형관심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F=4.068, p=.003),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F=2.613, p<.001)[18]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 이탈 과정과 남은 적응과정에서 축적된 어려움은 북한이탈 젊은 여성들에 비해 노인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추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따라서 북한이탈 노인 여성의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t=1.979, p=.049),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경우 자신의 외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신체 불만족과 불건강한 체중감량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19],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지나친 마른몸매 선호가 아닌 건강을 위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성형관심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F=5.560, p=.004). 북한이탈여성들은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더욱 많이 느끼는 이주민으로서,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성형수술 등을 통한 왜곡된 신체상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외모관심도는 연령에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 관심도가 높았다(F=2.937, p=.022). 이는 젊은층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향상시키도록 동기화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0][21]. 외모관심도는 체중조절 의도와도 차이를 보여 체중을 조절하려는 집단에서 외모관심도가 높았는데(t=2.269, p=.024),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체중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경숙[22]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한국사회의 외모중시 현상을 인지함에 따른 심미적 체형관리로서의 체중조절이 아닌 건강을 위한 체중조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여성의 외모관심도는 성형관심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F=11.745, p=.001). 성형에 관심이 있는 집단

에서 외모관심도가 높은 것은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은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수[17]가 되므로, 사회적 기준에 의한 외모를 맞추기 위해 지나친 성형의도가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에 북한이탈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과 웰빙이 겸비한 외모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외모관심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23], 본 연구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하위 영역별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운동영역에서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691, p=.027$ ). 자신의 체형에 대한 관심이 운동 행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나치게 날씬함만을 기준으로 체중을 줄이려는 운동보다는 건강 증진을 위한 외모관리가 되어야 한다. 섭식 영역에서는 배우자 동반 입국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F=3.315, p=.038$ ). 기혼자들의 외모관리 행동이 더 많다는 유해숙[24]의 연구 결과와 같이( $t=9.314, p<.001$ ), 본 연구에서도 기혼 여성 중 배우자와 동반 입국한 북한이탈 여성의 섭식행위가 미혼인 집단보다 높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정서, 신체적 안녕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25]해 주는 지지자로서,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배우자의 동반 입국은 외모관리의 섭식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타인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외모관리 영역 중 헤어관리 행동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여성들의 정신적, 물질적 변화를 나타내어 주었으며, 영향력 있는 신체 외모 변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재복시 직업, 성형관심도와 헤어관리 행동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북한이탈 여성의 헤어관리 행동이 가장 많았다( $F=2.524, p=.042$ ). 이는 조선영, 황승민[26]의 연구에서 실제연령과 지각연령이 모두 낮을수록 헤어관리 행동이 많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젊은 연령층의 헤어관리샵 접근의 용이성과,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려는 높은 욕구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재복 시 학생이었던 집단에서 헤어관리

행동이 가장 많았으며, 노동자의 헤어관리 행동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F=2.336, p=.043$ ), 유해숙[24]에 따르면 직업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F=16.441, p<.001$ ), 현원정[27]은 전문직 직업의 여성이 헤어관리 행동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F=4.096, p=.001$ ). 본 연구 결과 역시 노동자나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헤어관리 행동이 많음을 알 수 있어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헤어관리 행동이 유의하게 많은 것은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형에 대한 관심은 대중매체의 영향과 또래 지인들의 영향에 의하며[28], 이러한 관심들이 서로 교류되는 과정에서 성형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집단보다는 헤어관리 행동 등의 외모관리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메이크업과 의복관리 영역에서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 여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메이크업 및 의복관리 행동이 유의하게 많았다( $F=5.276, p<.001, F=3.008, p=.019$ , respectively). 본 연구 대상자인 20-30대의 북한이탈 여성은 입국 후 지역사회로 정착함에 있어 주 경제활동 대상자로서, 50대 이후의 대상자보다는 일과 취업을 통한 경제적 적응을 위해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메이크업 및 의복 관리 행동 등 전체적인 이미지 메이킹 활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메이크업과 의복관리 행동도 많다는 본 연구의 결과( $F=12.875, p<.001, F=11.306, p<.001$ , respectively). 는 홍수남[23]의 연구에서 외모관심도가 많으면 전반적인 외모관리 행동과 미용성형에 대한 유행을 지향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남한으로 입국하여 경제적·심리적 적응과 자립 활동 그리고 대인관계 활동 등에서 이주민에게 향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차별 당하지 않기 위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외모관리 행동은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 $r=.359, p<.001$ )와 외모관리행동( $r=.382,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행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이라는 강명주[1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북한이탈 여성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향상시키는 활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고, 북한이탈 여성 역시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외모에서 주는 긍정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연령과 외모관심도( $r=-.221, p=.002$ ), 자아존중감( $r=-.196, p=.005$ )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린 연령일수록 외모관심도가 높다는 선행연구[29]를 일부 지지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흐름은 노령화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며, 외모를 가꾸기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이탈 중, 노년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남한 사회 적응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체중조절 의도는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r=-.139, p=.049$ ), 체중조절 의도는 자신의 체중에 대한 불만족이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건강한 체중 조절 행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19]를 일부 지지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상자들이 약물이나, 불건강한 섭식 방법 등으로 체중을 조절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외모관심도( $r=.352, p<.001$ ), 자아존중감( $r=.205, p=.003$ ) 및 체중조절 의도( $r=.141, p=.046$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조기여와 황윤정[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미용성형을 수용하는 유일한 예측요인이 전반적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30]이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대중매체와 사회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릇된 사회적 인식으로 무분별한 성형의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외모관심도,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변인들이 보고되고

있는데[19],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이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을 44.7%를 설명하였다.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북한이탈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적극적이었고, 이는 곧 사회생활에 필요한 외모관리행동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상자들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때,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고립감과 차별극복을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외모관리에만 치중되지 않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적극적인 외모향상의 노력을 한다면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의 새로운 문화 적응과 심리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련성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40점이며, 외모관심도는 5점 만점에 3.20점이었다. 외모관리행동은 5점 만점에 2.67점으로, 대상자들은 메이크업과 의복 관리를 많이 하지만 운동과 섭식 관리 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는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 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에서는 외모관리 하위 영역별 차이는 있으나, 연령, 성형관심도, 재복지 직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령과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관심도 역시 외모관리행동,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은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외모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외모관

리행동을 44.7% 설명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표본 선정이 일부 북한이탈 여성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북한이탈 여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주관성과 응답 편의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북한이탈 주민 중 (사)세조위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의 필요성도 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북한이탈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올바른 외모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중재의 효과성 검증과 추후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S. D. Hayes, P. R. Croker, and K. C. Kowalski,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Self-perception, Global Self-esteem in Physical Activity: Evaluation of the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Model,"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22, No.1, pp.1-13, 1990.
- [2] A. Richter and N. Ridout, "Self-esteem moderates affective reactions to briefly presented emotional fa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5, No.3, pp.328-331, 2011.
- [3] I. H. Mischner, H T. van Schie, and R. C. Engels, "Breaking the circle: challenging Western sociocultural norms for appearance influences young women's attention to appearance-related media," *Body Image*, Jun, Vol.10, No.3, pp.316-325, 2013. doi: 10.1016/j.bodyim.2013.02.005. Epub 2013 Mar 21.
- [4] S. Fernandez and M. Pritchard,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media influence and drive for thinness," *Eating behavior*, Dec, Vol.13, No.4, pp.321-325, 2012. doi: 10.1016/j.eatbeh.2012.05.004. Epub Jun 26.
- [5] R. Korichi, D. Pelle-de-Queral, G. Gazano, and A. Aubert, "Relation between facial morphology, personality and the functions of facial make-up i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Aug, Vol.33, No.4, pp.338-45, 2011. doi: 10.1111/j.1468-2494.2010.00632.x. Epub 2011 Feb 1.
- [6] L. Myerson, *Somatopsychology of Physical Disability*, In Cruickshank(Ed),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NJ., 1971.
- [7] 이시원, 이승희, "공적·사적 자기의식에 따른 바디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07, 2004.
- [8] 장향미, *외모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9] 황윤정, 유태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제34권, 제11호, pp.1923-1932, 2010.
- [10]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 [11] 이인숙, 박호란, 박현정, 박영혜,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아동간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360-368, 2010.
- [12] 설진배, 송은희, "북한이탈여성의 자존감과 경제적 적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pp.291-314, 2013.
- [13] 조영아, 김연희,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3호, pp.509-527, 2010.
- [14] 이인숙, 양윤미, "여대생의 신체상, 외모관리 행동 및 심리사회적 건강과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301-312, 2015.

- [15] 전병제,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제11권, pp.107-124, 1974.
- [16] [http://www.129.go.kr/news/news02\\_view.jsp?n=8051](http://www.129.go.kr/news/news02_view.jsp?n=8051)
- [17] 조기여, 황윤정, “한국의 성형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발표논문집, pp.8-9, 2007.
- [18] 강명주,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메이크업 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13, 2014.
- [19] S. Daniali, L. Azadbakht, and F. Mostafavi, “Relationship between body satisfaction with self esteem and unhealthy body weight management,”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Vol.31 No.2, p.29, 2013. doi: 10.4103/2277-9531.115804. eCollection
- [20] 김정숙, “중·노년여성의 피부 건강관리 관련 요인과 실천행위,” 뷰티산업연구, 제1권, 제2호, pp.135-152, 2006.
- [21]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7.
- [22] 이경숙, “성인 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제1권, 제2호, pp.109-117, 2007.
- [23] 홍수남, “한국 거주 중국 여성의 외모관심도가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1권, 제3호, pp.585-591, 2013.
- [24] 유혜숙,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5] G. M. Tina, B. H. Donald, P. S. Laura, K. S. Jennifer, A. K. Dvid, and K. J. Francis, “Stress buffering effects of dauly spiusal support on women’s daily emotional and physical experiences in the contest nacner conerns,” Health Psychology, Vol.20, No.10, pp.20-30, 2011.
- [26] 조선영, 황승민, “중년여성의 실제연령과 지각연령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1권, 제6호, pp.1137-1146, 2013.
- [27] 현원정, *직장여성의 외적이미지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메이크업, 헤어, 패션을 중심으로*,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8] I. M. Javo and T. Sorlie,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among young Norwegian women: a population-based study,” Plastic Surgical Nursing, Jul-Sep, Vol.30, No.3, pp.180-186, 2010, doi: 10.1097/PRS.0b013e3181bfcf290.
- [29] N. A. Rudd and S. J. Lennin,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a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18, No.3, pp.152-162, 2000.
- [30] V. Swami, C. S. Hwang, and J. Jung, “Factor structure and correlates of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among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esthetic Surgery Journal, Feb. Vol.32, No.2, pp.220-229, 2012. doi: 10.1177/1090820X11431577.

저 자 소 개

이 인 숙(Insook Lee)

정희원



- 2000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건강증진, 북한이탈주민 건강, 뷰티케어

양 윤 미(Yun-mi Yang)

정회원



- 2001년 2월 : 숭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인문학사)
  - 2002년 8월 :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공학석사)
  - 2014년 2월 :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화장품 교육개발, 다문화 여성, 뷰티케어